

89' 농활

“부녀반 활동 지침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金保成
기!

차례

1. 여성농민의 삶 ----- 함께하는 농민 5, 6월호에서
2.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
3. 부녀반 분반활동에 들어가며
 - 1) 부녀반활동에 임하는 자세
 - 2) 부녀반활동 계획시 주의할 점
 - 3) 세부 프로그램
 - 4) 후속작업을 이렇게 합시다.
 - 5) 이런 점을 생각해 봅시다.
4. 이런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 1) 전근대적 여성의식 타파를 위하여
 - 2) 자본주의 향락문화, 산골마을까지 침투
 - 3) 올바른 자녀교육
 - 4) 부녀회에 대하여
5. 노래 (민요와 개사곡)
6. 건강상식

이 *자료집은 전반적인 내용(농활의 의미, 수입개방문제, 농민회 등)은 제외하고 부녀반활동에 필요한 특수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 농활기간중 작업과 생활속에서 가장 밀접히 만나는 분들이 여성농민의 때문에 부녀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농활대원들이 숙지해야할 내용입니다. 전반적인내용은 전대협 자료집 “녹두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성 농민들의 삶

여성농민과 노동

이 중 옥(전남 여성농민회 준비위 사무국장)

이농현상이 증가되어가는 가운데 농사일, 가사, 육아, 농외소득등의 많은 일을 떠맡게 된 여성농민

1. 들어가는 말

금년들어 자살한 농민이 신문
에 보도된 숫자만도 5~6명
이나 된다. 무엇이 농민들을 죽게
만들었는가? 근근히 마련한 토지
를 관청에 빼앗기고 부채를 갚을
길 없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
둔 채 목숨을 끊어야 하는 농촌현
실이 농정부재가 농민들을 하나,
둘 살해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농·축·수산물
수입품목이 예시, 발표되어 영농

철이 닥쳐도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길러야 할지 의욕조차 없
다. 수입을 보고 수입하지 못하는
작물을 심어야 된다고 떠들며 대
지만 여차하여 잘못심었다가는 과
잉생산이 되고 값은 통금보다도
못해진다. 그 예가 88년 고추파동
이라, 고추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여성농민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고 노동집약적 작물이다.
잘 말린 고추가 나오기 까지는 수
십번의 손질이 간다. 자식도 방치
해 둔채 고추를 자식마냥 애지중

지 생산한 것이 통금이 되었다. 그
것은 담배수입으로 인해 담배경작
농가가 고추작물로 대체했기 때문
인데 작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
던 고추싸움에 여성농민들이 누구
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다. 앞에서
도 이야기 했지만 고추라는 것은
여성농민들의 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농민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 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농민의 노동이 늘어 나고 있다는

정조이기도 하다. 농번기 노동시
간이 보통 16~18시간이나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농한기라는 것이
따로 있어 몸을 추스릴 기간도 있
었으나 지금은 농번기, 농한기가
따로 구별되지 않을 만큼 여성농
민이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러면 여성농민들의 노동현실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원인
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농민의 노동현실

1) 농번기의 노동

불과 3~4년 전만 해도 농번기
에 여성농민들이 하는 일은 밭하
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에 나
가 일을 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새참준비해서 들에 갖다주고 다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 8
~9시정도 되면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하고 10시가 좀 지나면 취침
을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논일,
밭일, 그것도 논갈이, 밭갈이에서
농사에 들어 가는 모든 노동이 여
성농민의 노동으로 대체 되고 있
다. 농기계가 하는 일은 가장이 담
당하지만 나머지 모든 일은 여성
농민이 도맡아 하고 있다. 품을 사
는 일에서 종삿을 지불하는 일 까
지도 여성농민의 손을 거쳐야 한
다. 그러면 그 사이 남편들은 무엇
을 하고 있을까? 일반적인 사례
는 아니지만 "살에 대한 의욕을 상
실한 가장들은 술독에 빠져서 산
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나 여성농
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러한 사례는 늘어 나는 것 같다.

요즈음 간간이 눈에 띄이기 시
작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논, 밭갈이
를 끝낸 가장들은 돈벌이를 찾아
도시로 나가고 나머지 모든 일은

여성농민들은 농한기·농번기 구별없이 가족의 생계
를 위해 닥치는대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며, 또한 출산,
육아, 가사노동등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력 재생산
노동, 그리고 행정당국에 의한 도로변 풀베기, 마을길
넓히기 등의 노동에 까지 동원되어 스스로 여자로 태어
난 것이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농민의 노동은 이중·
삼중으로 고달프다.

여성이 도맡아 하는 것이다. 아마
도 이런 현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줄어들 전망은 아니다. 그만큼 농
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이
아기도 된다.

이와 같이 여성농민들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살아야 한다. 1975
여성 농민의 노동비율이 33.3%이
던 것이 1985년 42.8%, 1986년 43.
9%로 늘어났고 자기 집안 농사일
에 여성농민 노동비율은 40.7% 고
용할 경우 49.0%, 품앗이 할 경우
53.1%나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농한기에는 공장으로, 행상으로 품을 팔며 구멍난 살림을 메우고 있다.

된 직후에 나온 노래가 "좋아졌
네"이다.

여성농민들을 논일, 밭일 가리
지 않고 생산현장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새마을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
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외형적 발전에 중점을 둔 사업이
었고 선(先)공업, 후(後)농업정책
에서 발생하는 도·농 격차를 온
폐시키기 위해 농민들을 동원한
운동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범한 부녀자층을
국가권력이 개입 조직화하여 조국
근대화-공업화-에 총동원하게
되는 바 이것이 새마을 부녀회이
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계층의 부

녀자들 보다 농사꾼 부녀자들을
노력동원에 총 매진하도록 독려한
다. 이것이 소위 '잘 살아가기 운
동'인 새마을운동이었다.

선공업지원으로 농업, 농촌은
피폐해져가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온가족이 메꾸어야 하는,
즉 청·장년들을 농외소득에 유인
하여 이농을 촉진시키므로 여성농
민 노동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
게 된다. 다시 말해 청·장년들이
담당하던 농업·노동 부문을 품을
주고 메꾸어 나가야 하는데 품을
고용할 만큼의 농지규모도 작거니
와(가족소작적 경영), 계속되는
적자를 메꿀 길이 없으므로 불가
피하게 여성농민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

특히 여성농민의 하는 노동은 노동집약적인 발작물에 투입되고 있다.

2) 농한기의 노동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농민들은 농한기, 농번기의 구분이 없다. 그것은 농한기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농촌, 농업현실 때문이다.

여성농민들의 농한기 노동은 주로 가내부업을 하는 것으로서 훌치기, 베짜기 화문석짜기, 수놓기 등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월 3~4만원 정도 밖에 안되나, 앉아서 노는 것 보다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집안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바따리자기

외형적 발전에 중심을 둔 '잘 살아 보기' 새마을운동은 농사꾼 부녀자들을 거리의 노력동원에 총 매진하도록 독려했고 과다한 교육비, 기계화, 주택개량, 소입식, 각종 농자재값의 인상 수입 개방 등으로 늘어만가는 빚 때문에 이농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성농민의 면아야 할 노동은 더욱 가중되고 미국과 국가독점 재벌들은 이를 기반으로 더욱 비대해져 가고만 있다.

등으로 건전한 자기발전의 길을 방해받게 된다.

3) 노동력 재생산 노동



이농현상이 증가되어가는 가운데 농사일, 가사, 육아, 농외소득등의 많은 일을

을 재생산하는 노동은 개인 여성이 전담해야 할 노동으로 노동의 가치가 일체 매겨지지 않는다. 도시 여성들 보다 여성농민에 있어서는 그 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면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 반찬거리, 식량을 날라야 한다든지, 어려운 형편에 도시락(반찬싸는 고통은 여성들만이 이해가능하다)을 서너개씩 싸야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해야 한다. 여성농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들일하다가 집에 와서 밥 할려고 하면 정말 짜증스럽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들에나가 일을 하고 말지 밥해먹는 것은 싫다"고 말한다. 가사노동은 댓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힘들다. 들에서나 집에 서나 었드려서 일을 해야 하는 여성농민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금년들어 자살한 농민이 신문지에 보도된 숫자만도 5~6명이나 된다. 무엇이 농민들을 죽게 만들었는가? 근근히 마련한 토지를 관청에 빼앗기고 부채를 갚을 길 없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목숨을 끊어야 하는 농촌현실이 농정부재가 농민들을 하나둘 살해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농·축·수산물 수입품목이 예시, 발표되어 영농

철이 닥쳐도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길러야 할지 의욕조차 없다. 수입을 보고 수입하지 못하는 작물을 심어야 된다고 떠들어 대지만 여자하여 잘못되었다가는 과잉생산이 되고 값은 통금보다도 못해진다. 그 예가 88년 고추파동이라, 고추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여성농민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고 노동집약적 작물이다. 잘 말린 고추가 나오기까지는 수십번의 손질이 간다. 자식도 방치해 둔채 고추를 자식마냥 애지중

지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여자 것 가 집안일하는 품삯을 제대로 쳐 놓 주지는 않지만 남편의 월급 속에 인 가족수당 등 부인의 노동비용이 든 지불되고 있으나 여성농민의 경 보단, 아무리 힘들도 지겨워도 보상도 큰 기대할 것이 없다. 여성 하루 가사노동에(주로 밥하는 것) 소요되는 시간만도 3~4시간 이 걸리고 짐승 거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5~6시간이 소요된다. 또 한가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 는 것이 있는데, 도시로 이농한 가

족들이 맛벌이를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할머니들한테 맡기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여성농민들을 부양받아야 될 처지임에도 농사일은 거의하면서 손자들까지 맡아야 하는 실례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직은 흔하지 않는 모습이나 실업률 증가를 놓고 생각할 때 특수한 경우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이 밖에도 행정당국에 의한 여성농민 노동력 동원이 있다. 꽃길 조성, 도로변 줄베기, 마을길 넓히기 등에 여성노동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동원은 주로 강제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부역이라는 것이다.

3. 과중한 노동의 원인

이처럼 여성농민의 노동이 해가 거듭될 수록 늘어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농민 노동의 현실로 보아 노농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한데 무엇이, 어떤 힘이 여성농민들을 다양한 노동현장으로 등을 떠다 밀고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좋은 새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노래를 모르는 농민들은 없을 것이다. 아침마다 마을방송을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새마을운동이 농촌 구석구석에서 실행



농한기에는 공장으로, 행상으로 몸을 팔며 구멍난 살림을 메우고 있다.

된 직후에 나온 노래가 "좋아졌네"이다.

여성농민들을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생산현장에 뛰어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새마을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외형적 발전에 중점을 둔 사업이었고 선(先)공업, 후(後)농업정책에서 발생하는 도·농 격차를 은폐시키기 위해 농민들을 동원한 운동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범한 부녀자층을 국가권력이 개입 조직화하여 조국 근대화-공업화-에 총동원하게 되는 바 이것이 새마을 부녀회이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계층의 부

녀자들 보다 농사꾼 부녀자들을 노력동원에 총 매진하도록 독려했다. 이것이 소위 '잘 살아보기 운동'인 새마을운동이었다.

선공업지원으로 농업, 농촌은 피폐해져가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온가족이 메꾸어야 하는, 즉 청·장년들을 농외소득에 유인하여 이농을 촉진시키므로 여성농민 노동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청·장년들이 담당하던 농업·노동 부문을 몸을 주고 메꾸어 나가야 하는데 몸을 고용할 만큼의 농지규모도 작거니와(가족소작적 경영), 계속되는 적자를 메꿀 길이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여성농민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

근대화운동-새마을 운동-이 대미자본으로 가능케 했다면, 여성농민은 노동의 댓가도 보상받지 못하는 과중한 노동현장으로 내본 근본요인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2) 원수같은 농촌, 천덕꾸러기 농민

해마다 신문지상의 작은 면을 차지하는 농민자살에 대해 어느 여성농민은 "남자들은 죽음을 택할 권리(?)도 있는데 여자들은 죽을 권리가 없다"며 비통해 하는데 통계는 정확히 낼 수는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한 가족에(우리나라처럼 봉건성이 강한 사회에서)대한 부양책임은 가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요, 철칙이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남자라면, 위신, 심지어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우리 사회이다(농촌은 더하다). 그런데 왜 가족부양을 책임질 가장이 살을 포기해야 하며 어느 여성농민의 절규처럼 여자는 죽음을 택할 권리(?)조차도 없는 것일까?

농수산부가 얼마전에 발표한 「88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소득이 8백 13만원으로 87년의 6백 53만 원보다 24.4%가 늘어났다고 한다. 소득이 늘어난 근거로는 88년 쌀의 사상 최대가격, 및 추곡수매가 16%인상, 각종 농산물생산증가와 가격상승, 가축가격의 상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가구당 평균부채는 3백 13만 1천원으로 87년의 2백 39만원 보다 31%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 통계조사방식에 대한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 소득증가를 보다 부채증가율이 훨씬 앞서고 있는 것만도 확실하다.

부채증가의 요인으로 과다한 교

〈표-2〉 88년말 현재 연령별, 남녀별 농가인구

연령 성별	총농가인구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7,272	2,570	740	685	881	1,166	1,228
남자	3,560 (49.0)	1,327 (51.6)	412 (55.7)	335 (48.9)	406 (46.1)	538 (46.1)	542 (44.1)
여자	3,712 (51.0)	1,245 (48.4)	328 (44.3)	350 (51.1)	475 (53.9)	628 (53.9)	686 (55.9)

(단위: 천명 ()안은 해당연령의 남녀별 구성비(%))

〈표-3〉 「년도별 농가수 감소추세」

구분 \ 연도	85년	86년	87년	88년
총농가수(총가구에 대한 구성비)	1,926 (20.1)	1,906 (19.3)	1,871 (18.4)	1,826 (17.3)
전업농가(구성비)	1,518 (78.8)	1,509 (79.2)	1,464 (78.3)	1,471 (77.6)
겸업농가(구성비)	408 (21.2)	397 (20.8)	407 (21.7)	409 (22.4)

(단위: 가구는 천, 구성비는 %, 전업, 겸업농가구성비는 총농가수대비)

육비, 기계화, 주택개량, 소입식, 각종 농자재값의 인상, 노동품귀에 의한 노임상승, 수입개방, 의료비등으로 농민가족의 생존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되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농가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86년 34만명, 87년 41만명, 88년 50만명의 대이동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표-2, 표-3은 3월 8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농림수산부의 「표본조사결과」이다.

이상(표-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세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실제 이들은 학생층이므로 농업노동참여율은 지극히 낮고 20~29세의 청년층은 이농가능한 세대이므로 안정적 농업노동세대로 볼 수가 없다. 결국 30대 이상의 세대들이 안정적 농업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30대 이상의 연령층 남,여구성비

는 여성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고 노동력도 노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성농민들의 노동강도와 노동량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표-3)에서 처럼 농가수수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농정책으로 일관되고 이농정책으로 일관되는 한 여성농민들의 노동강도, 노동량, 가내부업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3) 동금, 처치곤란한 농산물

지난 4월 8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예시제가 발표되었다. 88년 82개 품목, 90년 72개 품목, 91년 85개 품목등 2백43 품목의 농·축·수산물, 91년 까지는 완전개방된다. 농사지를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수입개방예시는

창·장년노동을 탈농화시키므로 여성농민의 노동력증가를 예시하는 것이 다름아니다.

농업이 민족자립경제의 토대이고 국가안보산업으로서 적극 육성, 보호되어야 함에도 수입개방을 전면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첫째,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 시켜주고 정권을 유지시키는 담보를 얻어 내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농축산물 재고량의 46%에 달하는 제1대국이 되었다. 이는 유럽, 인도, 중국 등 제국가의 농업, 농민보호, 육성정책으로 식량자립국 또는 식량수출국으로 전화되어 미국의 농산물시장이 크게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에 대하여 전국민적인 저항을 하지않고, 정통성, 도덕성 없는 현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일차적 수입개방대상선정국이 된 것이다. 둘째, 독점제벌의 최대이윤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이다. 독점제벌이 최대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골자는 저임금이다.

저임금유지를 위해서 실업자가 왕창 늘어나야 노동자끼리 임금싸움을 경쟁도시키고 농촌, 농업이 파탄되어야 실업자 무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리하여 농업포기정책인 수입개방을 전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특히 여성농민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여되는 밭작물은 수입개방으로 동금, 처치곤란한 형편에 놓여있다. 작년 고추파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필히 예견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여성농민들이 농산물파괴보상싸움에 적극동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수입개방의 문을 활짝 열도록 강요하는 미국, 이를 부조간 수용하는 현정부와 농민 여성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가장들로부터도 소외되는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 여성농민들의 주체적인 힘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부녀회를 만들어, 면·군 여성농민회를 조직하고 여성농민권익을 쟁취하는 힘있는 조직을 만들어 여성농민 스스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농민간의 참예한 대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만만한 봉, 최후의 노동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 농민의 자식들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여 부모의 생계를 유지시켜줄 현실은 못된다. 그렇다고 가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될 사람도, 농사지으면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농민들이다. 생존에 대한 억척스러움이 여성농민에게는 강하다. 이는 자녀출산,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품성이 가족생존을 위해 억척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책, 복지

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이 여성농민이다. 예로 농번기 탁아소도 전년도 까지만해도 1면 3개부락 실시하던 것이 올해부터 1면 1개 부락으로 줄어 들었고 모자건강을 돌봐야 할 모자보건요원도 해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한명도 없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가족법이 개정되어도, 남여고용평등법이 실시되어도 여성농민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관심조차 없다.

농촌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봉건사상은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마을총회에 참석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거니와 모든 불이익에 떨쳐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봉건사상은 무서운 장벽이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두가지얼굴, 즉 한편은 노동현장으로 끌어



들이기위해 개방된 것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 전통적 여성이 되라는 것을 강요하여 여성농민노동을 값싸게, 댓가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또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이농행열이 줄을 잇는 한 여성농민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의 최후담지자로 지속되는 한 미국과 국가권력은 마지막까지 여성농민노동을 동원, 수탈해 갈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농정책과—부채, 수입개방— 맞서서 농민, 농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농민부채가 늘어나게 하는 원흉 수입개방을 저지하고 이로 인한 이농대열을 방지하는 것이 여성농민이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미국군인을 위한 군사비 분담금은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정책재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부터의 지배를 청산하고 참 민주주의 정부를 우리손으로 세워야한다. 여성농민이라는 생산주체의 자부심으로 여성농민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남·여공히 받아 내어야 한다. 이렇게 할때만이 여성농민의 건강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요리사는 요리협회에, 이미용사는 이미용인연합회를 만들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농민회, 생산자조직, 작목별조직등의 조직속에 포함되어 농민집단의 권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에 있어서는 생산자, 작목별 또는 농민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여성농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거나 쟁취할 수 있는 조직적 힘이 없다. 국가로 부터도 소

외되고 가장들로 부터도 소외되는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힘을 가져야 한다. 즉,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부녀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의 기수로서 존재해 왔으나 여성농민들의 주체적 노력으로 하나 하나 일구어 나가면 부녀회는 틀림없이 우리의 힘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부녀회 또는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여성농민 개개인이 구성원이고 잘못된 농업정책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부녀회들이 모여 면·군 여성농민회를 조직하고 여성농민권익을 쟁취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농민 하나 하나의 힘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가 둘, 둘이 넷이 되어 종래에는 큰 힘을 이루고 이 힘에 의해 여성농민 스스로 과중한 노동으로 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농민**

이땅의 여성농민

허 준 순(가톨릭 여성농민회 총무)

교육도 차별대우

딸아이는 나면서 설움이다. 많이 바뀌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딸아이는 서운타 한다.

이렇게 태어난 딸은 자라면서 술한 차별속에 살아간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단지 차이일뿐인데도 말이다.

부모로부터 교육도 아들에게는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딸에게는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회가 가정의 부모로 부터 사회로 부터 교육으로 부터 겹겹이 제약을 받는다.

특히 여성농민은 처녀 때는 집안의 살림을 보태기 위해 또는 동생학비를 돕기위해 공장으로 떠나가고 결혼한 여성농민은 살림과 농사일로 씨름하다 보면 교육받을 기회는 물론 신문한장글 한줄 읽기도 힘에 겹다.

전래되어오는 다음의 노래는 여성농민의 교육에 대한 한없는 열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 오랍지(오빠) 남잔고로
논도 차지 밭도 차지
대궐같은 집도차지
하늘같은 부모차지
요네신세 여잔고로
먹은것은 밥뿐이요
인고기는 옷뿐이다

워싱턴 민간연구기관인 인구위기위원회가 세계여성의 건강, 결혼, 교육, 취업및 사회적평등 5개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44위



우리사회의 경제 및 사회구조는

에 그쳤다. 특히 교육과 사회적평등분야에서 다른나라보다 더욱 뒤떨어진다고 한다.

농민의 절반이오 우리나라 전인구의 십분의 일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지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여가시간이 따로 없는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

여성농민의 농번기 하루 노동시간은 무려 18시간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농번기뿐 아니라 농민살림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여성농민은 바쁘게 움직여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사시사철이 바쁘고 요즈

음엔 농촌가까이 까지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 덕분(?)에 더욱 눈코 뜰새없이 바빠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일에 매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살림, 모처럼 쉬는 일요일도 밀린 집안일로 잠시 쉴 틈이 없다. 농번기엔 농사일까지 틈틈히 해야하니 여성농민은 기계보다 더 많이 더 혹독하게 몸뚱아리를 혹사시키고 있다.

결국 농업소득에만 의존할 수 없도록 만든 농업정책 아니 농업발달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갈 것이다.

다음의 **1.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생히

농정정책과—부채, 수입
농민, 농업을 국가
에서 보호, 육성하는
법규어야 한다. 농민부
에 하는 원흥 수입개
고 이로 인한 이농대
오는 것이 여성농민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밖을 위한 군사비 분담
화를 위한 복지정책제
내야 한다. 그러기
들은
한
반

후여후여 새를꽃고 눈코 뜰새 없는데도
너무그리 말더라고 너무그리 말더라고
해저물어 돌아올때 열소새끼 울고와서
고추담고 빨래걸고 참깨수수 콩팥심고
여물우고 밥을하고 허리팔수 없는데다
이장반장 면서기들 감사온다 아단이며
면장은 청소하라 군수온다 청소하라
저녁먹고 설겅이 썩은고추 가려내어
배죽죽죽 타서널고 호박조각 감자대를
다들어서 추려놓고 품앗이로 감을깎네

말도마라 말도마라 일할수록 태산인데
허도허도 너무허네 입매저때 요때저때
그택이택 도로이택 바글들이 빠지는데
복지농촌 기계영농 입안열면 그소리

한나라에 살면서 너무그리 말더라고
어떤농은 그릴고 어떤농은 이룬다오
텔레비에 판하얏아 가을피부 영양크림
손톱청소 발톱청소 입맛밥맛 영양식에
마용체조 살빼기에 디스코가 유행이요
콘도골프 해외여행 미제일제 프랑스제
이쁜여자 옷벗겨서 이화장품 저화장품
가을정취 농촌풍경 말이좋다 말이좋아
너그덜만 입이있고 너그덜만 사람이나

타고다니는 **농민**의 **생계**를 담당하는 여

성농민 개개인이 구성원이고 잘못된 농업정책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부녀회들이 모여 면·군 여성농민회를 조직하고 여성농민권익을 쟁취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농민 하나 하나의 힘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가 둘, 둘이 넷이 되어 종래에는 큰 힘을 이루고 이 힘에 의해 여성농민 스스로 과중한 노동으로 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농민**

이 30%이고 84%가 일주일 쉬고 농사일을 시작했더니 여성농민의 몸뚱아리는 첫덩어리 인가.

아이를 낳은 임마는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최소한 한달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대도 논으로 밭으로 내달아 일을 해야 하니 가장 기본적인

모성보호조차도 안되고 있는 것이 여성농민의 현실이다.

여성농민은 자신의 능력·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부모·사회·교육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도 차별대우

딸아이는 나면서 설움이다. 많이 바뀌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딸아이는 서운타 한다.

이렇게 태어난 딸은 자라면서 술한 차별속에 살아간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단지 차이일뿐인데도 말이다.

부모로부터 교육도 아들에게는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딸에게는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회가 가정의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육으로부터 겹겹이 제약을 받는다.

특히 여성농민은 처녀 때는 집안의 살림을 보태기 위해 또는 동생학비를 돕기위해 공장으로 떠나가고 결혼한 여성농민은 살림과 농사일로 씨름하다 보면 교육받을 기회는 물론 신문한장 글 한줄 읽기도 힘에 겹다.

전래되어오는 다음의 노래는 여성농민의 교육에 대한 한없는 열망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 오랍지(오빠) 남전고로
논도 차지 밭도 차지
대궐같은 집도차지
하늘같은 부모차지
요네신세 여전고로
먹은것은 밥뿐이요
입고가는 옷뿐이다
갈겨주소 갈겨주소
글공부나 갈겨주소

때로 교육은 받을 기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하루라도 여자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집안식

구들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어쩌다 있는 여성농민교육이라도 받을라치면 남편승락받아야 하고 시어머니 허락도 떨어져야 하고 집안 두루두루 벌일없고 강아지 한마리도 별탈이 없어야 하고 아이들 도시락, 식구들 끼니 모두가 해결되어야 하니 언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경제 및 사회구조는 여성의 종속·착취 그리고 지위하락에 의존해 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농민

그러나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성농민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 소몰이 시위이후 곳곳의 농민생존권 싸움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산이나 평택의 땅찾기 싸움에서 의료보험거부싸움에서 또 수입개방반대하는 대회에서 여성농민들의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쁘고 지칠대로 지친 몸이지만 나머지 시간들을 나누고 또 쪼개어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

도 하고 옆동네까지 선전도 하면서 잡부금도 거부하고 시청료도 거부하고 수세도 거부하고 의료보험도 거부하고 마을 문제도 해결하고 동네 탁아소도 운영하고 부녀회도 자주적으로 운영하려 노력들을 한다.

오늘의 농촌, 농업을 지탱하는 힘은 이런 여성농민들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사회구조는 여성의 종속, 착취, 그리고 지위하락에 의존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성농민의 노동착취가 날로 그 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여성의 고되고 불평등한 현실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한 측면이지 개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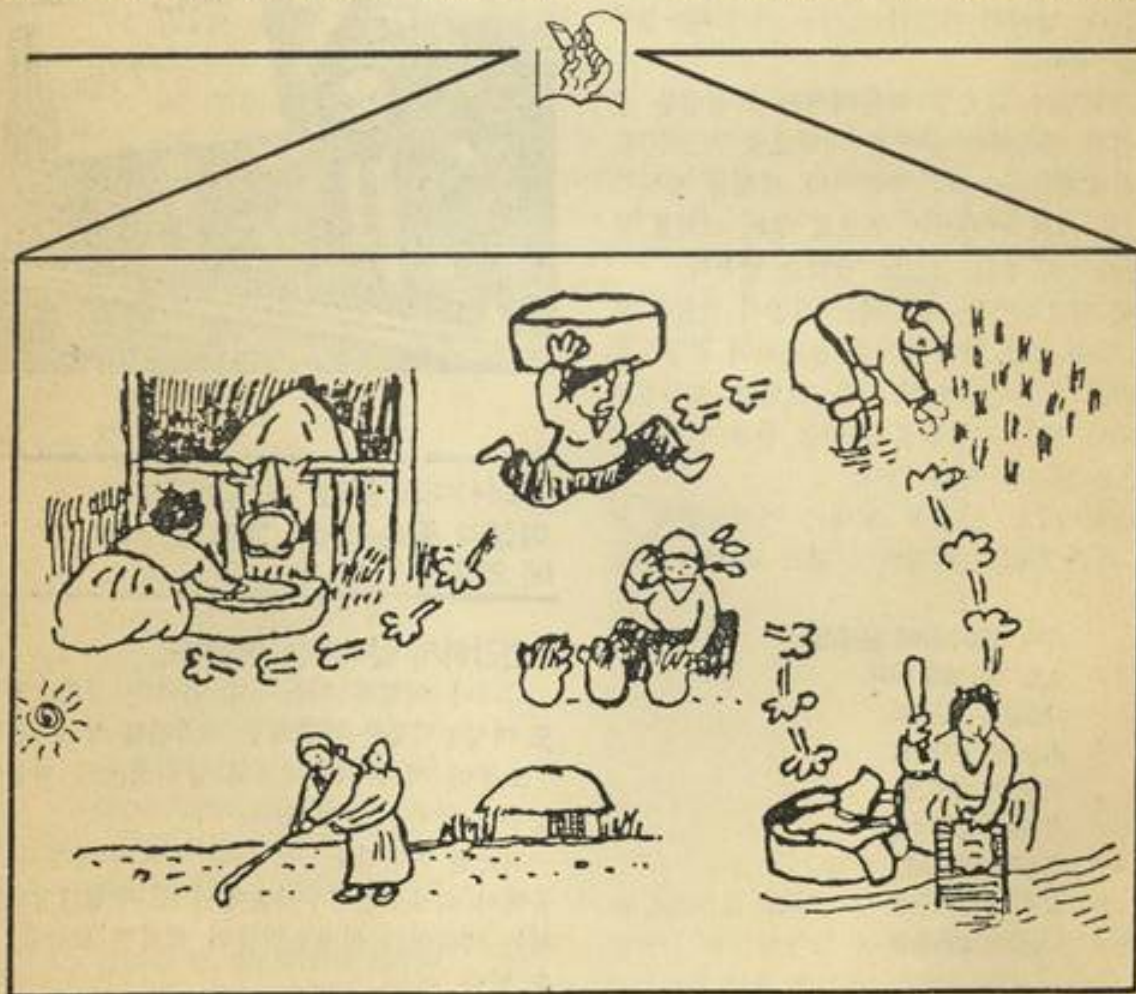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비뚤어지고 뒤틀린 사회 현실과 남자와 여자의 왜곡된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성이 의식화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남성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인간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난이 앞으로 여성농민의 지위를 높이고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성농민의 모습이 생생히 전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일랜드 혁명가들의 격언을 끝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스스로 자유롭고자 하는 자는 싸워야 한다.”



2. 여성 농민운동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여성농민은 농사와 가사일, 육아 등으로 하루 14-18시간이 고된 노동을 하며 전 농업생산력의 절반이 넘는 사회적 노동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대우는 커녕 여성농민은 가난과 갖가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는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과 여성천시, 가부장적 가계계승의 유교적 가치관, 그에 따르는 갖가지 제도적 불평등에다가 농촌에 산다는 소외감 등으로 정신적 압박까지 겪고 있다. 이렇게 여성농민을 짓누르는 조건들은 현재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성농민의 생활적 처지는 그 전보다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의 조합장 선거나 이장선출, 마을 내에서의 주요한 회의 등에 여성농민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농민이 현실은 본질적으로 농촌내에 온존하고 있는 반봉건적 생산양식에 기인한다. 빈, 소농과 소작노인 대부분인 농촌지역은 전가족의 노동력이 토지에 얽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반봉건적 생산양식은 필연적일 반봉건적의식이 잔존과 더불어 여성농민에게 파다한 이중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여성농민에게 반봉건적 처지나 인식들을 개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 경, 사회, 문화적인 제차별을 여성의 숙명적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농민으로서의 수탈과 여성으로서의 억압이라는 이중적 질곡을 타파하고 여성농민의 자주성을 적극 옹호,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농민운동의 내부에서조차 관심이 미비한 실정이며, 관점 또한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여성농민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여성농민운동의 주체가 여성농민들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잊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농민운동을 단계적으로 사교하거나 보조적, 기능적 위치로 파악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농사일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촌 지역의 토지문제, 농산물 가격문제, 그외 사회, 정치적 차별 등 제반 모순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성농민은 농민운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민을 농민운동의 일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묶어세우는 일에 관심과 조직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여성농민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여성농민운동을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여성농민대중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하게 벌여 나감으로써 봉건적, 가부장적 관습을 깨뜨리고 여성농민 스스로 적극적인 농민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읽어볼 만한 참고자료 : 녹두꽃, '자주적 여성농민운동을 위하여'
 ** '지창여성농민회 소개'는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3. 부녀반 분반활동에 들어가며

여성농민의 경우 농촌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여성화에 따라 농업 노동에 있어서 여성노동의 강도와 비중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봉건사회의 유제로 인해 향상되고 있지 못하였다. 과도한 노동, 가사노동의 압박, 자녀교육문제, 봉건유제의 문제(성차별, 피임, 고부간의 갈등, 가정내 의사결정권 부재) 등이 여성농민들의 주요한 문제이지만, 그들은 배스럼등을 통한 도시문화에의 동경과 왜곡된 현실인식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은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공동작업등을 함께 할 기회가 많으므로 집단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문제제기와 전망이 있다면 마을내의 부녀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1) 부녀반 분반활동에 임하는 자세

"부녀반 분반활동은 여성농민 주체와 학생 주체와의 공동활동이어야 하며 여성농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

부녀반은 그 전망을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성을 담는 것이 쉽지 않고 어지진다. 대개의 마을에 부녀회가 존재하거나 부녀회장이 있지만, 대부분 관청과 결탁된 어용이거나 형식적인 경우일 때가 많았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선거때가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마을에 큰 일이 있을때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분반활동에서 부녀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녀회 실태에 대해

이후 제시하겠음)

부녀반활동의 목표는 대화 활동을 통해 여성농민문제에 대한 인식과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부녀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선부르게 무언가를 조직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녀들의 특성, 역량에 맞는 마을내의 문제들이 확실히 제기되고 이러한 것이 집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반원들은 농촌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농민운동에의 여성농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마을의 특수한 문제가 무엇이며 부녀들이 어떠한 해결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고민하고 연구해 가는 자세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녀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유의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 여성농민들의 잠재된 활동가능성에 주목하자.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의 나이는 4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농활대원들은 흔히들 젊은 아주머니, 청년들 등 만나기 쉽고 애기하기 쉬운 사람만을 만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을과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노동의 강도가 가장 심하게 부딪혀 오며 자녀교육, 고부간의 갈등, 시동생 등에 대한 지원 등 온갖 짐을 한몸에 짊어진 가장 침에한 모순의 담지자인 여성농민, 그 중에서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농민대주에 주목하자.

둘째, 조급성을 버리자.

여성농민대중들은 전반적으로 문자해독능력이 낮고 TV선호도도 뉴스에 관한 것은 거의 없으며, 신문은 아예 안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활 그 자체로서 이땅의 구조적인 모순과 억압을 체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현상적일 때, 체념적이고 낡은 봉건의식에 가득차 있으며 정치의식이 낮을지라도 강요를 한다거나 단이적 설득을 하려는 방식 보다는, 자비, 질병, 발작물 등등 그들의 생활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조심스럽고 인내심있게 농활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여성농민운동에 기여하자.

부녀반활동의 주요 목표는 여성농민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있는 만큼 농활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 대중강연회, 토론회, 시각매체 등을 총동원하여 여성농민들의 의식화, 조직화에 기여해야 한다.

2) 부녀반 분반활동 계획서

11월 13일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의할 점

하나, 사전에 그 마을에서 영향력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부녀반활동 전반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

둘, 젊은 부녀층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령별 모임등의 창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한다.

셋, 분반활동시 노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게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한다.

넷, 근로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내용을 준비한다

다섯, 여성농민의 삶에 대하여 진실된 고민으로 일체감을 갖고 임하며 부녀반활동을 여성농민운동의 맥락속에서 이해하면서 목적의식성을 견지한다.

여섯, 여성농민들은 저녁시간에는 고된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많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많이 피곤해 하신다. 점심시간부터 오후작업을 나가는 두세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점심시간을 매일 이용하는 것은 작업에 지장이 있어 무리가 되니, 활동기간 중 2-3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자.

일곱, 아동반, 학생반과의 내용적, 인적연계를 갖도록 해본다.

여덟, 부녀반활동에서의 대화나 주제등은 부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잘 파악하여 설정한 후, 분반원들 사이에서 먼저 토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아홉, 분반활동 후 하루평가나 분반별 모임시간등을 통해 부녀반 목표가 활동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이후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준비된 프로그램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매일 평가를 통해 상황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자.

3) 세부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유형

※다과회 : 부녀들의 오랜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하여 실제로 9시 이후로 시간을 잡는 것이 좋으며, 부녀들의 공통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다과회 분위기에 맞는 가볍고 명랑한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어지면 사전에 준비해 간 민요 3-4곡 정도를 가르쳐주고 함께 불러보는 것도 좋다.

부녀반 자체 운영 → 사회문제를 다룬 말의 미묘의 상영

※토론회 : 다과회보다 좀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마을내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부녀간의 논의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의 지나치게 산만해 지는 것은 과감히 잘라 버리고 토론을 집중적용 유도하도록 한다. → 현안문제 활동하여 농민전체 인식으로 인식함

※문화발표회 : 우리 전통문화, 노동하고난 뒤의 여가를 우리의 춤과 가락으로 즐겼던 우리 전통놀이가 사라지고 도시적, 소비향락적 문화가 우리의 농촌을 침식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잊혀져 가는 노동요와 우리의 빚들어진 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급을 꾀한다. 농활을 가기 전에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전 농활대원의 문화선전대화를 필요로 한다.

※호별방문 : 호별방문은 매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분반활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한다. 분반활동기간을 9일정도로 잡을 때 적절하게 토론회, 다과회, 문화발표회를 배치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호별방문이 되는데, 처음 이틀동안은 마을의 모든 집을 가볍게 한번씩 방문하여 인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후는 토론회나 다과회에서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담소를 나누도록 하며, 많은 부녀들이 호감을 느끼면서 토론회, 다과회, 발표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양교육 : 여기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지역 부녀들의 생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가령, 종물 가르치기, 민요와 개사곡 가르치기, 성교육 (임신과 육아,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 건강교육 등등 이 부분은 각 준비주제의 역량에 맞게 하되 실제로 많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 일별 프로그램 모형과 모범사례

※일별 프로그램 모형

첫째-호별방문

인사와 부녀반활동의 취지를 소개하고 가능한 분들과는 부녀반 프로그램에 대해 의논해 본다. 또한 아주머니들이 잘 모으시는 집을 알아둔다.

둘째-돌래날-전체모임, 상호소개 및 인사, 활동취지 소개

마을에 온 느낌 및 오전에 했던 근로를 매개로 마을사정 및 여성농민의 실태에 대해 대화로써 점검해 보고 이후 부녀반활동에 대해 함께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이후 많은 분들의 참가를 위해 노래발표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간단한 놀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째, 다섯째날-본격적인 모임으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야기 시간으로 설정해 본다.

주제는 날짜별로 몇가지를 설정하는 방법도 좋다. 전원일기와 같은 TV나 노래 가사를 통한 방법 등 대화의 소재를 미리 생각해 본다.

네째날-연령별 모임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부녀반 모임에서도 발원권이 주로 장년층에 있다고 했을때, 20-30대만의 젊은층 모임이 필요하다. (교부간이 함께 있을때, 솔직한 대화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학생들과 여성농민의 관계개선 및 이해에 보다 노력해야 하며 인식공유 및 실천적 모색 (여성농민회 권장...) 까지 시도해본다.

여섯째날-아동반, 중고생반과의 공동모임을 기획해 본다.

아동반의 경우 활동시간이 오후이므로 아동반 분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엄마, 아빠 얼굴그리기,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나 글짓기 등등) 을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녀교육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일곱째날-마을잔치때 발표할 노래나 노래극, 존극등을 함께 준비하면서 여성농민끼리의 단합과 학생, 농민간의 동질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내용과 실천적 의지를 담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덟째날-마을잔치

***부녀반 활동 모범사례

자료1-사학과 3년 정영희

이땅 4천만 국민의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해 내는 농민들을 작년 처음으로 치산이라는 마을에서 만났었다. 막연하게 입으로만 외치대던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었다. 특히 분반활동 준비에 있어 부녀반을 맡게 되면서 농민문제와 여성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농민'의 실상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분반활동을 시작하면서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날, 호별 방문을 실시했는데 아주머니들이 피곤해서서 대부분 그냥 주무시거나 막상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의 아저씨들이 얘기를 다 해서서 분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날은 점심을 먹고 오후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비는 시간을 이용해 부녀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 속에서 전반적인 부녀회 문제와 아울러 수세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야기 자체가 산만하거나 다른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빠지지 않도록 부녀반원들이 토론의 핵심을 주변의 쉬운 말로써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령별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때 흔히 나타나는 교부간의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층의 아주머니들이 나이든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세째날과 네째날을 다시금 호

별방문을 실시했는데 좀 문제의식이 강한 젊은층 아주머니 몇분을 찾아 뵙고 심것이를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여러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이것은 이후에 이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공동의 힘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한다. 다섯째 날, 다시금 연령별 모임을 갖고 의료보험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엔 다과회를 준비해서 농활대원과 부녀회원들 간에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아동반과의 연계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부녀반원들이 아동반을 맡으면 부녀회원들이 아이들을 돌봐준 것에 대해 진정 고마움을 느끼고 훨씬 더 신뢰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부녀반 모임 속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해 이야기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아동반에서 편지를 쓰게한 다음 그 편지를 부녀반 모임 속에서 읽어 주며 아이들의 현상태 등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며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2-경제학과 4년 정승희

첫째날--지역식사 후 호별방문. 마을에는 중년층 뿐. 침체된 분위기. 호별방문 결과 농활 학생들에 대해 호기심은 많으나 그리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부녀반은 의미하게나마 가망성이 보이긴 한다.

둘째날--부녀반모임을 구판장 아줌마 댁에서. 미화엄마가 주동이 될 것 같아 모임. 다섯명 모임. 마을 전체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원래 잘 노시는(?) 아주머니들이었다. 학생들 소개와 아주머니들 이름알기 (**엄마, **할머니) 농민가 노래배우기. 언제 시집왔고 시집살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한이 어린 그윽한 눈길만. . . .

세째날--마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오후작업 거의 중지. 덕분에 부녀반 활동 일찍 시작. 비닐하우스에서 소주 마시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이제 아줌마들 속상한적 없다는 등의 얘기에 외면하시더니, 술이 들어가자 온통 눈물바다. 처음에는 여성 일곱분이 함께 얘기를 시작했으나 술을 못마시는 분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심.

학우들은 아주머니들과 이야기의 집중점을 찾으려 시도했음. 아주머니들은 술에 반쯤되어 이야기를 모으는데는 매우 난감했다. 문제점: 이 마을이 낙천적이고 아주머니들이 유달리 주량이 재서 부녀반활동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함께 하기 위한 노래와 놀이, 이야기 주제가 필요함. 내일은 학우들이 음료수 준비할 것. 학우들은 아주머니들이 실사 술을 사오신다 해도 적극 반류할 것!! 의의: 몇몇 아주머니들이 남아 그집 사정. 아주머니들의 생활적 고통을 알 수 있었고 보다 친근해 질 수 있었다.

네째날--여덟명의 아주머니들 모임. 음료수 들고 가서 시작함. 아주머니들은 오늘도 막걸리 준비. 어제 준비한 궤도를 보며 뽕짝 개사곡, 농민가, 새농민가, 진주난봉가 등 노래배움. 노래를 배우면서 가사를 통해 제법 배웠다고 이야기 진행. 농협과의 갈등과 불만 토로. 자식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 있었음. 아들 교육을 위한 딸들의 희생을 거의 모든 아주머니들이 당면시함.

아주머니들 질문: 학생들은 왜 농촌에 와서 욕을 보는가?

왜 학생들은 농민들에 대한 노래를 농민도 아니면서 이토록 많이 부르는가?

이 질문에 대해 드러머 농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심과 : 청장년반들의 아저씨들 의식은 상당히 높고 비판의식도 날카로운데 비해 아주머니들은 거의 그런 것들은 관심 밖이었으므로 얘기를 조금 하지 말자.

다섯째날—아주머니들 세명으로 격감. 부녀반 활동의 중심이 되는 아주머니 다섯분 모두 대낮부터 술마시고 안오셨음. 내일은 반드시 작업중 술에 대해 얘기해 보자. 부녀반 조직 필요성 강조도 역점을 두자. 세명의 아주머니들 중에는 기독교농민회에 적을 두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두명 있었다. 의료보험, 수세문제 발제를 준비한 학우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

문제점 : 아주머니들은 주로 '듣는편'이었다.

여섯째날—오늘은 마지막날이라 여덟명이 모이시고 청장년반과 함께 모여 나중에는 더 많이 오심. 서로 돌아가며 노래부르기. 첫날부터 꾸준히 가르쳐 드린 4박자 율동이 아직도 이색한 듯 했으나, 농민가는 거의 모두 배웠고 진주난봉가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주머니들이 진주난봉가 노래 속의 머느리었다면?" 이 이야기 주제가 됨. 남편과 부인의 불평등한 위치를 얘기. 남편의 구타에 대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얘기. 준비해 간 학우 한명, 남편구타의 원인에 대해 농촌부인의 생활고를 중심으로 얘기. 매우 좋은 반응. 내일 마을잔치 프로그램 의논. 부녀반 장기자랑 대표 뽑음. 서로를 하겠다 함. 마을잔치 노래대회에서 부를 독창과 합창할 노래 결정과 연습. 밤 1시 넘어 파장.

자료 3 : 농활 부녀반 운영의 모범사례

1. 일반적 특성

ㄱ.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청용마을

ㄴ. 마을의 지형 : 평야지, 산간지

2. 마을 인구수 및 가구수

ㄱ. 농업형태 : 논밭의비율 = 논 : 밭 = 70% : 30%

ㄴ. 인구수 - 총인구 (140명) 남 : 여 = 64 : 76

ㄷ. 인구분류 (여자만)

연령별 분류	부녀회 참가수	세대수	종교보유상황
60이상	2		
50 - 40	10	5	1
40 - 30	10	5	
30 - 20	3	1	1
20 - 10	3		

(정확치 않음)

3. 부녀회의 역사

ㄱ. 탄생년도

ㄴ. 활동내용 : 질문내용이 합당한 활동내용이 전혀 없음.

청용마을의 부녀회는 "여행"에 관해서만 필요하고 마을 부녀자들이 놀이,

춤 즐길 때만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뭉침

4. 계

ㄱ. 계의 종류 :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계 (여행 계)

여행계가 대체적인 마을의 모임을 형성시킴

ㄴ. 마을에서의 영향력 정도 :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세력을 형성함.

5. 마을 상황과 부녀회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ㄱ. 마을상황

중심세력이 온 (마을유지, 전통적으로 여당사람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야당 바람이 불 때는 야당쪽으로 기우는 주관이 없는 사람. 현재는 국민당의 입장. 마을에서 아주머니들과 노태, 춤등을 함께 즐기며 마을 부녀자들에게 계속 바람을 집어 넣음. 중농). 부녀회장(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열성 민정당원. 남편의 경우 온길홍씨와 비슷하게 춤바람으로 부녀자들을 이끌어 마을에 퇴폐풍조 조장함. 부녀회장을 6년째 하고 있다.)이고, 이장의 경우 별로 힘이 있거나 마을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한다. 온 씨는 예전에는 사업하면서 마을에서 가장 입김이 세었으나 이제는 살림도 많이 축소되고 힘이 약화되어 그나마 남은 재산의 힘으로 마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념이 없다.

죽 온, 부녀회장내외가 가까이 다니면서도 내심 마을 주도권에 급급해 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었을 때 여당 대 야당세력의 대립으로 나타나 보인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온 씨의 경우 야당사람이라고 해서 중,소농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언제든지 여당으로 기울어 질 수 있는 사람이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 씨, 임 씨, 김 씨 정도가 외식수준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식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3사람 모두 결합이 되지 않고 운동의 초기 수준에 있다. 영향력도 미약하다.

ㄴ. 부녀회 상황

위에서 부녀회 회장에 대해 약간 언급했지만 열성 민정당. 그리고 부농이 막는 과시로 마을 부녀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부녀회에서 구판장이파든가 실지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여행계를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닌다. 이마을 모든 부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몇몇 춤 잘추고, 노태 좋아하는 부녀자들은 이런 것으로 결속력도 끈끈하고, 마을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남편들도 묵인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중에서 몇분 외 생각있는 아주머니들은 전체 부녀회 모임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자신의 나이를 외식해서 대부분 40 - 50대 아주머니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이 분들 역시 통일된 농촌여성의 방향성이파든가 세사람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다.

다. 후속작업

1) 마을 부녀회의 분위기를 민족문화 쪽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장구의 음으로 민요를 부르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며 아픈 사람들의 힘을 결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만연되어 있는 퇴폐적인 풍조 - 함께 모이면 놀러 다니고 춤, 노래로 고통을 체념화 시키는 풍조. 모였다 하면 놀리고 하는 풍조를 건전한 부녀회의 대화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2) 부녀자 몇분, 임씨부인, 김씨부인, 윤씨부인을 개별적으로 서신, 책과 자료전달 그리고 두달에 한번 정도 찾아 뵙기, 가을 추수, 겨울에 팀 차원에서 내력을 생각이다. 특히 임씨 부인은 다른분들에 비해 가능성이 좀 높고, 나이가 젊다는 것이 장점이다. 덕촌(청용 앞마을)아주머니들과 잘 어울린다는데 이분은 덕촌과 연결해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구체적인 후속작업의 내용은 잡히지 않았음.

라. 부녀회 본반활동대원 명단

6. "부녀반 활동 일지 (월 일 - 월 일)

가. 준비활동

1) 학습

여성농민문제 : 농민이면서 여성의 역할 (가사노동, 자녀교육까지 감수 해야하는 위치. 이것은 한국경제구조 즉, 농촌경제구조의 문제점에서 부터 여성농민의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더불어 도시문화의 찌꺼기(텔레비전, 소비문화)를 물려 받을 수 밖에 없다.

부녀회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에서의 문제를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노태연습 (민요, 개사곡), 장고, 북배움

3) 대화나 노태를 통해 여성농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녀회의 내용을 배운다

일일계획 : 2일 - 호별방문, 홍보(부녀반 본반활동에 대해서): 상황확인

3일, 4일, 5일, 6일 : 부녀반모임

7일 : 부녀반정리(전체모임), 여성의 지위 (문건작성)

8일 : 마을잔치, 선전활동, 부녀반의 목표와 여성농민문제 만화 전시회

나. 본활동 (월 일 - 월 일)

첫째날 : 마을에 있는 부녀회 활동에 대해서별로 알수가 없었다.

부녀회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는 것만 알았다.

둘째날 : 호별방문을 통해서 부녀반에 대해 홍보하였으나 모이지 않음 부녀회장 내외는 비 피하러 왔다 가고, 임씨 내외가 왔다가 이야기 하고 감.

평가 : 부녀반이 모이지 않는 이유

- 부녀반 활동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음.

- 활동대원의 적극적이지 못한 홍보활동

- 부녀반 모임형태의 추상화 - 마을 상황이 자악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일반론만 적용시킴.

- 부녀반 활동에 대한 여성농민의 관심이 낮다.

- 비가 왔기 때문에 - 마을이 1반, 2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2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지 않음.

셋째날 : 오전 10시부터 비가 오는 관계로 2시까지 이장님댁에서 2반 중심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노래, 북, 장구치고 점심먹고 끝냄.

개사곡, 통짝, 민요에 대해서는 아주머니들이 아무런 반감 없이 너무나 흥겹게 부름.

평가 : 첫모임이라는 이유로 노래만 부를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모인 것이 잘못임. 이후의 모임과 연결성을 갖기 보다는 한번의 놀이로 끝나고 말았다.

넷째날 : 4시부터 1, 2반을 망라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질 생각으로 모임. 1반 아주머니들 10-11, 12명 정도가 모였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노래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아주머니들을 부녀반 으로 유도. 여성농민의 문제점, 농민의 어려움 - 정부의 반 농민정책 (저곡가), 수입개방정책으로 - 을 이야기 하고 나중에 몇분(윤씨 부인, 양씨부인 2분정도)이 모여 부녀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부녀회 모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딱마울의 부녀회 활성화의 사례보고도 있었음.

평가 : 대체적으로 토론 분위기에 동조해 주시고 인정하셨지만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부녀회 문제에 대해서도 윤부인이 "거울에 일감을 마련해 보겠다." 이상의 발전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거울까지 어떻게 보낼 것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

다섯째날 : 별활동이 없었음.

여섯째날 : 윤부인, 임부인, 김부인 세분만이 소모임을 마련하러 했으나 임부인하고만 개별적으로 만났다.

평가 : 8시 30분쯤에 방문했으나 (임댁) 논, 밭에서 막 일 끝내고 오셔서 9시 30분까지 설것이 동 일을 도와드림.

마을문제와 부녀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나 방향성 이학돈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끌어지지 않음.

ㄷ. 총평가

- 1)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준비기간중 목표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 2) 계획적이지 못함. 즉흥적인 모임을 만들어 냈고 이후 모임의 연결선을 만들어 내지 못함. 중간평가가 없었음.
- 3) 활동대원의 대중활동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면이 없었다.
(부녀회가 아니더라도 "모임의 형태"마련의 계기, 인자 발굴)
- 4) 마을상황 - 부녀회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파악이 되지 않았다.
- 5) 부녀반 본반활동 형태에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녁식사 시간이 9시 이후인 집이 많았고, 남편들이 밤 늦은 시간에 못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 6) 문화면에서 장구, 북, 민요로 살리지 못함.
- 7) 후속작업 : 임부인 (온), 운부인. - 이분의 경우 덕촌과의 연결가능. 과 서신 자료교환.

4) 후속 작업을 이렇게 합시다

① 일출간의 짧은 농촌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단번에 여성농민 운동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성실하고도 지속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적으로도 멀고 늘 바쁘게 지내는 일정 등 여러 한계점들이 많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교류 속에서 신뢰감은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적인 차원으로는 계절별로 가을농활, 겨울농활등을 조직할 수도 있으며 각 마을에 연하장, 편지보내기, 유인물 등의 자료 보내기, 방문 등을 계획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② 또한, 지속적이고 발전된 연대들의 모색을 위해서 부녀반 주체들의 사후평가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각 팀의 활동평가 속에서 성과물과 오류를 자세히 정리, 축적하여 이후 부녀반 활동의 모범을 실질적 자료로 제시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각 팀의 활동상황을 농민회에 올바로 취합, 보고하는 것은 이후 농민회 활동을 내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므로 농활 후, 각 팀의 활동보고와 평가서를 꼭 단대 농준위 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편지보내기